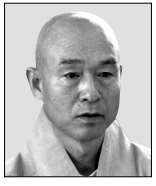


일주문



보살계 수계 법회
현성 서울 도선사 조실 스님은 3월 16일 흥은동 현성정사에서 출가 열반절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보살계산림
영배 양산 통도사 주지 스님은 4월 11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보살계산림' 입제식을 봉행한다. 회향은 13일.



불교방송 상임이사 선출
정념 서울 흥천사 회주 스님은 3월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94차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마곡사 산사음악회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4월 30일 오후 7시 경내 특별무대에서 '마곡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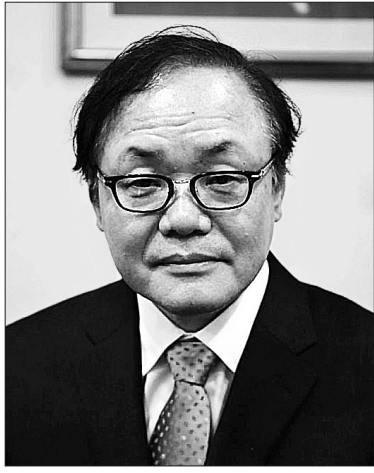


성공회대서 채플 강의
법현 태고중 열린선원장 스님은 기독교 종립 성공회대에서 올해 1학기 동안 불교를 주제로 채플 강의를 진행한다.

“비수도권 최고 사립대로 육성”

Interview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신입총장 취임을 계기로 비수도권 사립대학 중 3위 진입을 목표로 합차게 발돋움한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3월 21일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비전에 대해 밝혔다.

이 총장은 “지금 대학은 변화를 주문 받고 있다. ‘참사람 인재양성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기초교육 강화, 인성교육, 실용교육으로 교육의 내실화와 취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현재 비수도권 사립대 중 8위권인 경주 동국대를 3위까지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핵심과제도 소개했다.

첫째는 기초교육 강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이를 위해 올해 이공계열 신입생들에게 학문기초 교과목 수준별 강의를 도입했다. 두 번째는 실용중심 교육이다. 이 총장은 “올해 고용노동부 대학장 조일자리센터 사업대학에 선정됐다. 이와 연계해 취업 지원센터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기금 연간 40억원 모연 계획
불교발전위 발족·선센터 건립
창조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 강화

세 번째는 인성교육 강화다. 불교종립 대학 건립이념에 기반을 둔 교육을 강화하고 참사람 핵심역량 육성과정과 더불어 봉사활동을 다양화 시킬 계획이다. 네 번째는 교육시스템 선진화로 교양, 전공 교육 관리 시스템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운영 평가 분석 제도를 마련한다.

이 총장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팔정도를 실천하고 생각해 좌우명이 되도록 하는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와 교육지원시스템 선진화 등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연간 30여억 원인 발전기금 모금액을 40여억 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발전기금을 내고 싶은 대학이 되어야 한다. 특히 불교계와의 소통을 위해 불교발전위를 연내 발족하고, 선센터 건립, 고승학 연구, 사찰림 생태환경 연구 등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기업과 유력인사, 동문들의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미래기획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한편, 이대원 총장은 1980년 동국대 농업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독일 Kiel대학원 석사, 1993년 동 대학원 박사를 취득했다. 1993년 동국대 교수로 부임해 바이오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3일 제297차 이사회에서 신입총장으로 선출됐다. 이 총장의 취임식은 3월 3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비전선포식도 함께 진행된다.

노동위-비정규직네트워크 MOU
비정규직 노동자 마음건강 위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위원장 해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대표 이남신)와 3월 21일 MOU협약을 맺고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 및 심리 치유,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사회노동위는 비정규직네트워크 소속 32개 단체와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성한다.

박아름 기자

베트남서 한국어학당 입학식

국제연꽃마을, 랑남성 탐키시에서



(사)국제연꽃마을(회장 원명)은 3월 6일 베트남 랑남성 탐키시에서 한국어학당 입학식 및 어린이집 기공식을 열었다. 원명 스님은 “탐키시 지역민 중에 한국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글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면서 “최고의 시설과 강사진으로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졸업생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봄 가득 담아 선물 드려요!

중림福, 우리은행과 저소득가정 지원



중림총합사회복지관(관장 이은희)은 3월 18일 '제2회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봄 가득 사랑 한 상자' 행사를 개최했다. '봄 가득 사랑 한 상자'는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레토르트 식품·세안용품·양말·화장지 등을 담은 선물 상자를 전달하는 행사다.

박아름 기자

귀향, 뼈아픈 역사... 함께 기억하리

지구촌공생회, 3월 19일 영화 '귀향' 상영회



불교계 국제구호NGO단체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율주)는 3월 19일 종로구 서울극장에서 후원자 초청 '귀향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 할머니 4명과 조정래 감독, '귀향' 출연배우,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 배우 전무송 씨와 강수연 씨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이자 나눔의집 이사장을 함께 맡고 있는 율주 스님은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상영되지 못했는데 '귀향'은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조정래 감독은 '귀향' 촬영에 앞서 11년 동안 나눔의집에 방문해 할머니들과 친분을 쌓고 대화를 나눴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귀향'이 더욱 값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눔의집 김근자 할머니는 영화 상영에 앞서 지구촌공생회에 '빈곤국가 교육지원 기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김근자 할머니가 그동안 받은 위로금을 쓰지 않고 모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박아름 기자

현대불교문학상 고영섭 등 4인 선정

시·시조·소설·평론 부문... 4월 16일 시상식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견 문인들을 대상으로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학협회·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현대불교문학상 제21회 수상자와 작품으로는 △시 부문 고영섭(시인, 동국대 교수)의 '길·사랑의 지도'와 4년 △시조 부문 하순희(시조시인)의 '제 3의 나라'와 4년 △소설 부문 김용희(소설가)의 <해랑> △평론 부문 정효구(문학평론가)의 '붓다와 함께 쓰는 시론'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수상에 대해 시 부문 수상자 고영섭 시인은 “이 땅의 시인들에게 불도유(佛道儒) 삼교와 무속·향가는 유전인자였듯이 신명을 실은 가무를 통해 만해의 '괴롭 남'과 미당의 '우리 남'에 다가가려 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소설가도 “식민지 시기, 살아남은 것이 우위의 증거가 되는 끔찍한 시절에 조선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부조리' '삶의 불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부족한 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4월 1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000만원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손에 잡히는 평화 공유할 터”

평화살림콘서트 여는 변택주 살림연구가

“아이들에게 평화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학원 안 가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찾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어 합니다. 관념 속이 아닌 손에 잡히는 평화예요.”



변택주 살림연구가

한반도에 꼬마평화도서관 1만개를 세우겠다는 목표로 활동중인 변택주 살림연구가는 3월 21일 서울 방배동 '마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진행하는 '평화살림콘서트'에 대해 설명했다.

평화살림콘서트는 3월 27일 <미술관에 간 붓다> 저자 명법 스님을 첫 주자로 문화운동가 채현국 선생(5/29),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7/31),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 이현주 한약사(9/25),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저자 일현 스님(11/27)이 나설 예정이다. 행사는 서울 방배동 오신채 없는 밥집 '마지'에서 진행된다. 콘서트는 각 초청 인사들의 '평화이야기'로 문을 연다. 이후 변택주 씨와 초청 인사 간의 평화 대담이 이어진다. 이는 '평화(平和)'는 단 두 글자이지만 각자 받아들이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것이다. 또 평화를 주제로 한 동화책 구연, 문화공연, 청중과의 대화 등도 진행된다.

“신영복 선생께서 감옥생활을 버티게 해준 것은 독방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겨우 신문지 크기만한 햇빛이었다고 하셨죠.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살고 죽는 건 작은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평화가 무엇인지 모색할 겁니다.”

윤호섭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49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6년 4월 6일(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 CD 우송)
-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 (도량식, 조석중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헌 공 편 (삼보통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칭, 각종 불공의식 등)
 - ④ 제의식 편 (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만, 구명시식, 방생의식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용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계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건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

물 흐르듯... 5작품 한정제작

- 제목 : 해수관세음보살님-수곽 1
- 크기 : 1500(가로)×900(세로)×1800(높이)mm
- 재료 : Bronze(황동주물), 화강석 다이

불교조각연구원

상담전화
031-429-1077
010-9195-1044